Book Band 10 . Working as a Team - Fee Fie Fo… MUM!

Cover Note?

- 스토리 북의 앞면과 뒷면에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읽기 수업 방법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Front Cover Note	
Before reading (책을 읽기 전)	책을 읽기 전에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어보세요 책의 앞뒤 표지를 보고 페이지를 넘기며 훑어 보세요. 주인공은 샘과 사만다예요. 다음과 같이 물어보세요. • 샘과 사만다는 어떤 아이들인 것 같나요? (그들이 쌍둥이라는 것과, 쌍둥이들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 샘과 사만다의 어떤 점이 비슷하다고 생각하나요? • 'Fee Fie Fo …(아이쿠 지독한 냄새야)' 라는 말이 나오는 다른 동화들을 알고 있나요? 그 동화에는 어떤 주인공들이 나왔나요? • 동화 속 주인공 들에게 어떤 일이 생길 것 같나요?

Back Cover Note	
After reading (책을 읽은 후)	책을 읽은 후 아이와 같이 이야기 해 보세요. 아래의 질문을 물어보세요: • 동화 첫 부분에서 엄마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나요? 왜 그녀는 마지막에 깜짝 놀랐나요? • 왜 엄마가 연극 워크샵에 가자는 말을 직접 하지 않고 종이에 써서 했을까요? • 아이들이 워크샵을 마칠 때는 어떤 마음이 들 것 같나요? • 책을 읽고 어땠나요? 아이가 이야기를 처음부터 다시 한번 읽도록 지도해주세요. 읽기에 자신감과 실력을 쌓아줄 것 입니다.
Other things to do (다른 액티비티)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동화에 대해 얘기를 나눠보세요. 아이들이 왜 똑 같은 이야기를 계속해서 듣고 싶어할까요?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동화를 당신에게, 또는 형제, 자매에게 얘기해달라고 해보세요. 흥미진진한 활동을 원한다면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동화로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연극을 해보세요

Book Band 10 . Working as a Team - Fee Fie Fo… MUM!

Storybook?

- 스토리 북 교재 내용에 대한 번역입니다. 수업 준비 시, 미리 참고하세요.

Storybook	
2pg.	Chapter 1 - Terrible twins (1 장 - 말썽꾸러기 쌍둥이들) 샘과 사만다는 아홉 살 쌍둥이였어요. 그들은 얼굴이 비슷했어요. 그들은 목소리도 비슷했어요. 그들은 항상 다투었어요.
3pg.	어느 토요일 아침 엄마는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화창한 날이었어요. 새들이 노래하고 있었지요. 벌들이 붕붕거렸어요. 아빠는 음이 잘 맞지 않는 곡을 휘파람 불었어요. “아침 먹어라!” 엄마가 불렀어요
4pg.	위층에서 쾅 하는 소리, 꽥꽥거리는 소리, 고함치는 소리가 들렸어요. 새들도 놀라 달아났지요. 벌들도 붕붕거리지 않았어요. 아빠는 손가락으로 귀를 막았지요. “오, 이런,” 엄마가 한숨을 쉬었어요. “두 녀석이 서로 먼저 내려오려고 시합하는구나.” 쌍둥이는 거실을 달려와 먼저 문에 들어서려고 다퉜어요
5pg.	“비켜!” 사만다가 날카롭게 말했어요 “밀지 마!” 샘이 소리쳤어요. “으앗!” 둘 다 식탁에 부딪혔어요. 출렁! 우유가 쏟아졌어요. 후두두둑! 콘플레이크가 쏟아졌어요. 쨍그랑! 숟가락이 떨어졌어요.
6pg.	샘이 파란 컵에 담긴 계란을 휙 집었어요. “조심해!” 엄마가 소리치면서 서둘러 접시를 잡았어요.

	“샘이 내 파란 컵을 가져갔어요!” 사만다가 소리쳤어요. “그건 내 건데!” “아니야!” 샘이 소리쳤어요. 팍! 계란이 깨졌어요.
7pg.	“그만 해!” 엄마가 화냈어요. “진심으로 하는 말이야.” 그녀는 수화기를 들고 번호를 눌렀어요. “여보세요,” 그녀가 말했어요. “청소년 센터인가요?” “네,” 누군가 대답했어요. “대런입니다. 무엇을 …?” 대런은 전화기를 귀에서 멀리 뗐어요. 그는 소음에 놀랐지요. FISH-FACE … 생선대가리! / 그건 너야, 바보야! / 꺼져! / 에잇! / 아야!
8pg.	“여보세요! 토요일 아침에 하는 9 세 반이 있나요?” 엄마가 소리쳤어요. “10 분 뒤에 시작하는 연극 워크샵이 있어요,” 대런도 소리쳤어요. “감사합니다,” 엄마가 말했어요. “샘과 사만다를 데리고 갈게요.” 엄마는 전화를 끊고, 종이를 찢어 이렇게 썼어요: You two are going to drama class. NOW! (모두 연극 수업에 갈 거야, 당장!) 그리고서 그녀는 시끄러운 쌍둥이들 앞에서 종이를 흔들고서 아이들을 차에 태웠어요.
9pg.	Chapter 2 - Meet the Cast (2 장 - 배우들을 만나다) 엄마는 청소년 센터에서 차를 세웠어요. “우와, 포스터를 봐!” 그녀가 말했어요. “어린이 연극팀이 잭과 콩나무를 공연하는구나.”
10pg. 11pg.	“재밌겠지?” 엄마가 말했어요. “아니요,” 샘이 말했어요. “재밌을 것 같아요,” 사만다가 말했어요. “포스터에 나오는 공주역할을 하면 좋겠다.” “꿈 깨!” 샘이 콧방귀를 뀌었어요. “다투지 말아라,” 엄마가 신경질을 냈어요. “서로 떨어져 있어,” “그게 나한테 좋겠다,” 사만다가 샘을 쏘아보며 말했어요. 바로 그 때, 유쾌해 보이는 젊은 남자가 문으로 머리를 내밀었어요.

	그는 쌍둥이들을 보며 미소를 지었지요. “안녕, 너희들이 샘과 사만다로구나. 너희들은 쌍둥이지! 멋지다!” 그가 말했어요. “난 대런이야, 감독이지. 들어와서 팀과 인사하렴.” “안녕하세요, 대런선생님,” 사만다가 공주님 같은 목소리로 인사했어요. 그녀는 그의 팔 뒤에 숨어 하프 소리가 나는 홀로 내려갔어요.
12pg.	“하프를 연주하는 케이티란다 - 그리고 정말 하프 연기도 하지!” 대런이 말했어요. 사만다가 눈을 깜빡였어요. 케이티는 하프를 그냥 연주하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녀는 하프 같은 옷까지 입고 있었어요. “안녀엉,” 케이티가 노래하듯 인사했어요. “안녕!” 드라마팀의 다른 아이들이 인사했어요. I’m Josh! (난 조쉬야) Honk Honk! I’m Brad! (꽥꽥! 난 브레드야!) I’m Aisha! (난 아이샤야!)
13pg.	샘과 사만다는 감시카메라 같이 이리 저리 고개를 돌렸어요. 그곳은 여러 가지 일들로 분주해 보였어요. 배경을 그리는 사람들, 의상을 만들고 조명을 설치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배우뿐 아니라 모두 자기 역할이 있었어요. I’m Billy! (난 빌리야!) / I’m Grace! (난 그레이스야!) I’m Hari! (난 하리야!) / I’m Ellie! (난 엘리야!) Hello-o I’m Katy! (안녀엉 난 케이티야!) / I’m Chico! (난 치코야!) I’m Suki! (난 수키야!)
14pg.	그리고 케이티만 의상을 입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브레드는 거위 옷을 입고 뒤뚱뒤뚱 걸어 다니고 있었죠. 엘리는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커다란 앞치마에 핀을 꽂고 있었고, 조쉬는 청바지 위에 녹색 긴 상의를 입고 거울에 비친 모습을 보며 싸움 연습을 하고 있었지요.
15pg.	그리고 케이티만 의상을 입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브레드는 거위 옷을 입고 뒤뚱뒤뚱 걸어 다니고 있었죠. 엘리는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커다란 앞치마에 핀을 꽂고 있었고, 조쉬는 청바지 위에 녹색 긴 상의를 입고 거울에 비친 모습을 보며 싸움 연습을 하고 있었지요. 공주옷은 무대 위 술이 많은 낡은 깔개 위에 놓여있었어요. 사만다는 혼자 흐뭇한 미소를 지었지요.
16pg.	Chapter 3 - The big hairy giant (털복숭이 거인) 거위인 브레드는 부리에 두 장의 종이를 물고서 뒤뚱거리며 사만다에게 다가왔어요. "꽥꽥! 여기 네가 맡을 대본의 일부분이야," 그가 말했어요. "고마워," 사만다가 말했어요.
17pg.	6 장(Scene 6) 거인의 성에서 거인: 아이쿠 이런 냄새야! (Fee Fie Fo Fum!)* 지독한 냄새가 나는군. 어디서 나는 거지? 하프: 그건 잭이지요! 거위: 그가 내 황금알을 훔쳐갔어 하프: 그리고 그가 마가렛 공주도 데려간 것 같아! 거인: 그는 멀리 가지 못했을 거야. 그를 잡아다 흠씬 두들겨 줘야지. 그리고 고양이 먹이로 주겠어. *Fee Fie Fo Fum! 잭과 콩나무에 나오는 거인의 대사로 다른 문학작품이나 노래, 영화 등에서도 많이 쓰였다. Fie 는 부정의 의미를, Fume 은 냄새, 향이란 뜻을 갖고 있다.
18pg.	사만다는 첫 번째 장을 꼼꼼히 읽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장도 읽었지요. 두 장 모두 거위 이야기, 하프 이야기, 거인 이야기는 있지만 어디에도 마가렛 공주 이야기는 없었어요. 하프는 케이티였고 거위는 브레드였어요. 그렇다면 남은 것은…
19pg.	"헉!" 사만다가 작게 말했어요. 그녀의 미소는 사라졌어요.

	그는 샘을 쳐다 보았어요. 샘은 같은 대본 페이지를 읽고 있었어요. “헐!” 사만다가 다시 중얼거렸어요, 마음 속엔 끔찍한 상상이 떠올랐지요. 그녀의 얼굴이 일그러지고 배도 아파오기 시작했죠.
20pg.	“다 됐니?” 대런이 즐겁게 외쳤어요. “너희 배역을 맡을 준비가 됐니? 우리가 잭과 콩나무를 연기할 거란 걸 알게 됐을 거라 생각한다. 우리는 직접 대사를 썼는데 그건 진행하면서 바꿀 수도 있어.” 사만다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아이샤가 공주옷을 입는 것을 보았어요. 그걸 보니 그녀의 배가 더 아파왔어요.
21pg.	그리고 아이샤가 털이 북실북실한 낡은 깔개를 가져왔어요. “이거 입어 보겠니?” 그녀가 물었어요. 사만다는 침을 꿀꺽 삼켰어요. 그 깔개는 사실 깔개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털이 북실북실한 팔이 달린 헐렁하고 낡은 상의로 바닥까지 닿는 커다란 거인 의상이었어요. “그래, 입어 봐,” 대런이 말했어요. 그는 샘과 사만다의 등을 밀며 아이샤가 그 낡은 털 의상을 아이들 머리 위로 씌워 입히는 것을 도왔어요.
22pg.	Chapter 4 - Two heads are better than one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샘의 머리가 거인 의상 위로 불쑥 튀어나왔어요. 사만다의 머리도 샘 옆으로 솟아 나왔지요. “웩!” 샘이 말했어요. “여기서 너 뭐해?” “나도 웩이다,” 사만다가 말했어요. 쾅! 둘은 코를 부딪혔어요. “내 옷 벗어!” 샘이 씩씩거렸어요. “내 옷이거든!” 사만다가 말했어요.
23pg.	“무슨 소리야,” 샘이 딱딱거렸어요. “우린 동시에 같은 거인이 될 수 없잖아.” “그렇게 하라는 거 같은데,” 사만다가 거울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샘은 거의 옷 밖으로 튀어나올 뻔 했어요.

	거울 속의 머리 둘 달린 괴물은 그를 쏘아보고 있었어요. “머리 둘 달린 거인이라니!” 그가 말했어요. “이럴 수가! 난 너랑 같이 붙어있기 싫다구.”
24pg.	놀라서 샘이 머리 위로 옷을 잡아당겼어요. “그만해! 너 땜에 나도 벗겨지잖아,” 사만다가 꽥 소리를 질렀어요. 그녀는 샘의 발을 밟고 넘어졌고, 그들은 둘 다 케이티의 의자 위로 엉덩방아를 찧었어요. “어어어어어!” 케이티가 거인이 그녀를 덮치기 전에 휠체어를 밀어 피했어요.
25pg.	거인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미안해, 케이티!” 둘은 같이 외쳤어요. “정말 정말 미안해!” “괜찮아!” 케이티가 다시 휠체어를 밀어 다가왔어요. 그녀는 입이 귀에 걸릴 만큼 웃고 있었어요. “이거 정말 정말 웃기다.” “진짜 진짜 웃기다,” 조쉬가 말했어요. “우리 거인을 위해 삼창을, 꽥! 꽥꽥! 만세!” 거위가 말했어요. “우린 두 머리가 서로 싸우는 거인을 생각해본 적이 없었거든,” 아이샤가 흥분해서 말했어요.
26pg.	“말다툼 하는 대사를 연극에 좀 넣자,” 케이티가 말했어요. “그래!” 팀의 다른 사람들이 대답했어요. 케이티는 펜을 꺼내고 휠체어의 다른 쪽에서 종이를 꺼냈어요. 샘과 사만다는 모두가 그녀 옆에 모여 대본을 고치는 것을 쳐다보았죠.
27pg.	“얘들아, 이리 와 봐,” 조쉬가 그들을 불렀어요. “너희도 같이 할 거지, 그치?” 엘리가 물었어요. 머리 둘 달린 거인이 서로를 쳐다 모았어요. “할 거야?” 한 명이 물었어요. “난 할 거야!” 다른 하나가 씩 웃었어요. 쾅! 그들은 코를 부딪혔어요.
28pg.	Chapter 5 - Team work (5 장 - 팀워크) 집에 돌아온 뒤, 샘과 사만다의 엄마 아빠는 평화로운 아침을 보내고 있었어요. 이제 쌍둥이를 데려올 시간이었죠.

	엄마는 청소년 센터에 주차를 했어요. 뒷문이 열려 있어서 그녀는 아이들이 연기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죠. 그녀는 들어보았어요. “오 이런 냄새야! 잭을 잡으러 가자!”
29pg.	“재밌겠는데!” 엄마는 생각했어요. 그리고서는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이 쪽으로 가자니까!” 익숙한 목소리였어요. “아니야, 이쪽이야!” 다른 목소리가 소리쳤어요. “당기지 마!” “밀지마!” “그 코 좀 내 귀에서 치워.” “아얏! 너 날 꼬집었어,” “오, 안돼!” 엄마가 놀랐어요. 그녀는 뒷문을 열고 계단을 뛰어 올라갔어요.
30pg.	“샘! 사만다! 싸우지 말라고 했지!” 엄마가 소리쳤어요. “장난하는 거 아니다!” “아이쿠 이런… 엄마다!” 엄마가 무대 위로 뛰어오자 거인은 놀랐어요. 무대 위가 조용해졌어요. 엄마는 주위를 둘러보고,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어요. 그녀 뒤에는 털이 많은 괴물이 서 있었어요.
31pg.	그 괴물은 머리가 두 개였어요. 하나는 샘이고 다른 하나는 사만다였지요. 두 머리는 그녀를 매우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지요. “아이구 이런 냄새야,” 오른쪽 머리가 으르렁거렸어요. “이 시끄러운 엄마를 어떻게 하지?” 왼쪽 머리가 말했어요.
32pg.	“이런!” 엄마가 얼굴이 빨개져서 말했어요. “미안하다. 너희가 싸우는 줄 알았어.” “우리가요?” 샘과 사만다가 말했어요. “우리는 싸우지 않아요. 우린 팀인걸요!” “맞아요, 그들은 우리 팀 속의 팀이예요.” 대런이 웃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정말정말 재밌어요!”